

# 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의 기후금융 지원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  
김 준 성 (kimjs@kdb.co.kr)

- ◆ 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의 기후금융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'30년까지 중저소득국 앞 지원금액은 '23년 보다 60% 확대될 전망
- ◆ 그러나 5년전 대비 중저소득국 앞 적응(adaptation) 관련 금융 지원 비중이 소폭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개발도상국 앞 지원을 확대할 필요

## □ 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\*이 '23년 여러 국가들\*\*에 지원한 기후금융 총액은 1,250억 달러로 '19년(616억 달러) 대비 2배 규모

\* 글로벌 개발금융기관 10곳 : WBG, EIB, EBRD, CEB, ADB, IDBG, AfDB, IsDB, AIIB, NDB

\*\* 1인당 GNI 13,845달러 초과는 고소득국, 그 이하는 중저소득국으로 분류

- (중저소득국) 총 1,250억 달러 중 60%(747억 달러)는 중저소득국에 지원되었으며, 지역별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(172억 달러), 남미(136억 달러), 남아시아(129억 달러), 아시아태평양(109억 달러) 순
  - 기후완화 관련 지원 비중은 67%였으며(500억 달러), 에너지(27%), 교통(18%), 건물 관련(12%) 산업 순으로 지원
  - 기후적응 관련 지원 비중은 33%였으며(247억 달러), 에너지, 교통시설 및 인프라 개선(26%), 물·위생 시스템(14%), 농업·식량 관련(8%) 산업 순으로 지원
  - 지원 형태는 대출 63%(469억 달러), 정책지원 14%, 보조금 지원 7%순이며, 적응자금의 보조금 지원 비중이 11%로 완화자금(5%) 대비 높은 편
- (고소득국) 지원금액중 40%(503억 달러)는 고소득국에 지원되었으며, 92%인 462억 달러가 EU국가에 지원
  - 기후변화 완화 관련 지원 비중이 94%(473억 달러)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에너지(30%), 교통(30%), 건물 관련(25%) 산업을 주력으로 지원
  - 지원 형태는 대다수(81%, 406억 달러)가 대출이었으며, 크레딧라인 10%, 보증 5% 순으로 보조금 지원(0.17억 달러)은 미미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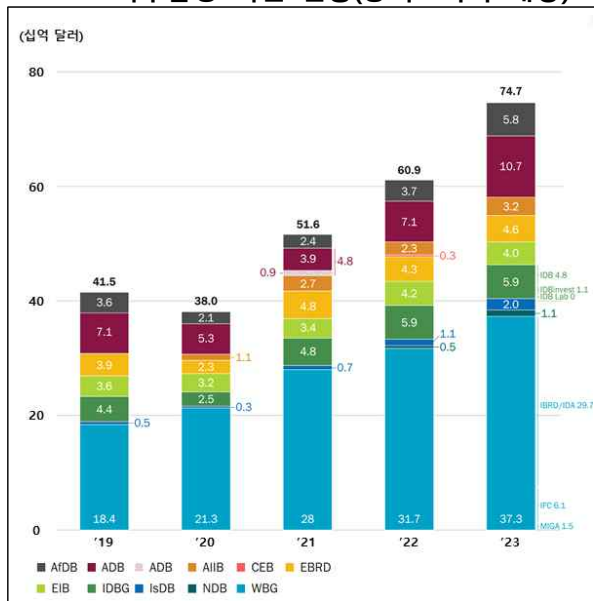
□ 기후금융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다자개발기관간 가입국 소득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존재

- 기후금융 지원 규모는 유럽투자은행(EIB) 37%, 세계은행그룹(WBG) 32%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외 아시아개발은행(ADB) 9%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6% 순
- EIB, WBG 두 기관의 지원액은 '19년 405억 달러에서 '23년 86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원 비중이 66%에서 69%로 증가
- EBRD, ADB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미주개발은행(IDBG) 등은 동 기간 지원 규모가 증가(20 → 30억 달러)하였으나 규모 및 증가율 모두 상기 기관보다 열위
- 이슬람개발은행(IsDB)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, 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, 신개발은행(NDB)\* 등은 기후금융 규모가 미미한 수준

\* BRICS 5개국의 출자로 '14년 설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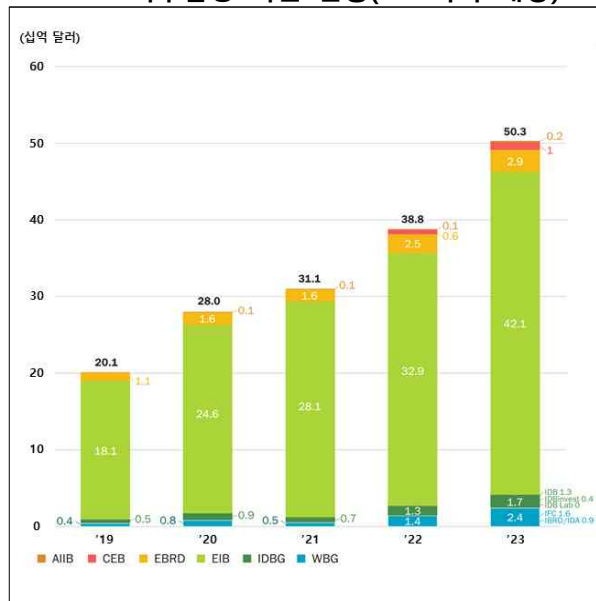
- 유럽지역 개발기관(EIB, EBRD, CEB)은 고소득국 지원 비중이 높으며, 나머지 기관들은 중저소득국 지원 비중이 대다수

MDB 기후금융 지원 현황(중저소득국 대상)



자료 : EIB, "2023 Joint Report on MDBs' Climate Finance"

MDB 기후금융 지원 현황(고소득국 대상)



자료 : EIB, "2023 Joint Report on MDBs' Climate Finance"

□ 사업 목적별로는 기후변화 완화에 78%(973억 달러), 적응에 22%(277억 달러) 지원 하였으며, 완화 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

- 완화사업 지원금액 973억 달러 중 51%는 중저소득국에 배정되었으며, 이는 고소득국 비중과 비슷
- 적응사업 지원금액 277억 달러의 대부분(89%, 247억 달러)은 중저소득국 앞 배정
  - '23년 중저소득국 앞 적응자금은 '19년 139억 달러 대비 77.6% 증가하였으나, 동 기간 고소득국 앞 완화자금 증가율(147.6%) 대비 열위

주요 MDB의 사업별 기후금융 지원 현황

(단위 : 십억 달러)

구분	중저소득국		고소득국		계	
	'19년	'23년	'19년	'23년	'19년	'23년
완화자금	27.5	50.0	19.1	47.3	46.6	97.3
적응자금	13.9	24.7	1.1	3.0	15.0	27.7
합계	41.4	74.7	20.2	50.3	61.6	125.0

자료 : EIB, "2019 & 2023 Joint Report on MDBs' Climate Finance"

□ 주요 MDB는 '30년까지 중저소득국에 1,200억 달러 지원할 예정이며, 이 중 420억 달러를 적응 관련 사업에 지원할 계획('24년 COP29)

- 이 계획은 '23년 중저소득국 앞 기후금융 지원금액 747억 달러 대비 60% 증가한 수치
  - 특히 개발도상국 앞 적응자금은 '23년 지원규모(247억 달러) 대비 70%를 확대할 계획

□ 시사점

- 주요 MDB의 기후금융 지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중저소득국 대 고소득국 비중은 6:4 수준을 유지중
  - 중저소득국 앞 기후금융 지원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유럽 지역의 고소득국 앞 지원도 확대
-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저소득 개발도상국 앞 적응자금에 보다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
- 한국은 증가하는 기후금융 지원 사업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MDB와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